

과목코드: KOR-301

과목명: 고등 국어 III

시험명: 현대 문학 비평 에세이 기말고사

학번: 202405001

학생이름: 김현우

제시문에 등장하는 '나'는 고향을 떠나 7년 만에 돌아온 인물로, 자신의 방이라 생각했던 공간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는 상황에 놓여있다. '나'는 귀향을 통해 기대했던 소속감과 정체성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, 오히려 더 깊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.

인물의 심리 상태는 '이 방의 주인이 아니었다'라는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잘 드러난다. 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소유권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, 고향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과 귀속의식의 상실을 의미한다. '어머니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방'이라는 표현에서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괴리, 그리고 기억과 실재 사이의 불일치가 드러난다.

이 작품의 주요 주제는 '귀향의 불가능성'과 '정체성의 위기'라고 할 수 있다. 주인공은 물리적으로는 고향에 돌아왔지만, 심리적·정서적으로는 완전한 귀향을 이루지 못한다. 방이 쌀과 보리, 농기구로 채워진 모습은 인물이 떠난 사이 삶이 계속 진행되었음을, 그리고 그 흐름에서 인물이 소외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.

이러한 주제는 현대 사회에서 고향의 의미 변화와도 연결된다. 산업화, 도시화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, 귀향했을 때 느끼는 괴리감은 현대인의 보편적 경험이 되었다. 작품은 '고향'이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닌, 정서적 안식처로서의 의미를 가지며, 그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.

결론적으로, 이 작품은 주인공의 귀향 경험을 통해 인간의 소속감 상실과 정체성 위기를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다. '방'이라는 사적 공간의 변화는 인물의 내면 변화와 함께 더 큰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며, 독자로 하여금 '고향'과 '소속'의 의미에 대해 재고하게 한다.